

곡성군, '2030청년농부' 육성 나섰다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00명 양성 청년주도 미래농업 '시동' 작목별 현장실습·창업농장 조성...하반기 경영실습농장 임대도

곡성군이 2022년까지 신규 청년농업인 1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30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나섰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2030 청년농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진행해 청년이 주도하는 미래농업의 시동을 걸고 있다.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는 총 사업비 7억8000만원(국비 3억1000만원, 군비 3억8000만원)이 투입돼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2030 청년농 네트워크사업, 청년농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선도농가와 청년 농업인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목별 현장실습과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간담회 등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군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7명, 2019년에는 9명 등 총 16명의 창업농업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

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는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할 계획이다.

경영실습 농장은 청년들에게 최적화되고 현대화된 스마트 온실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영농실습이 가능해 초기 영농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모임체 발족도 서두르고 있다.

군은 읍면 지역 청년농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 간의 상거래를 마치고 6월 중에 '청(靑)농(農)공(共)채(彩)'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농공채'는 2030 청년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도 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공유, 희망분야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청년농들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청년농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최근 부모의 농사를 물려받거나 하는 청년 승계농 유입이 늘고 있다"면서 "농업의 세대교체로 농업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2030 청년농부를 농촌의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당도 식감 좋은 '곡성멜론' 본격 출하

곡성군의 대표 소득작목인 곡성 멜론(사진)이 본격 출하됐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곡성을 대표 멜론 공동선별장(APC)에서 올해 곡성멜론 출하식이 갖고 본격 출하에 나섰다.

곡성멜론은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후 특성,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 농가들의 정성이 더해져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다.

'기차타고 멜론마을'이라는 브랜드로 2015년에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세계농업기술상 수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곡성'이라는 지역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상승세를 타에 따라 곡성멜론도

전국 대형 백화점 납품망과 해외수출망을 구축하며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은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곡성멜론 우수성 알리기도 열을 올리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페이스 페인팅, 풍선공예, 곡성멜론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이 '곡성'이라는 지명과 '멜론'이라는 과일을 서로 연관짓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곡성멜론 첫 출하와 함께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 도시민 대상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지난 20일 송귀근 고흥군수가 '군민소득 3000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2022년 '군민소득 3000만원 시대' 군, '종합계획보고회' 소득증대 5대 전략·12대 과제 추진

고흥군이 2022년까지 1인당 군민소득을 3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흥군은 지난 20일 군청 흉양홀에서 송귀근 고흥군수 주재로 '군민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열어 소득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흥 군민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0만원으로 전남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53%에 불과하다.

보고회에서 송 군수는 소득 증대를 위한 5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 이에 따르는 66개 시책을 제안했다.

5대 전략은 ▲군민소득 3천 추동력 확보 ▲농수축산업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관광산업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농수축산업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흥 한우 품질 고급화, 해조류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기업 홍보와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군민소득 3000만원 시대 실현은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군, 스마트폰 활용 방법 유튜브 크리에이터교육 실시

고흥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29일까지(주 1회 총 12회 거처) 3개월간 실시되는 교육은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부터 기획, 촬영, 편집, 홍보 방법,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크리에이터란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에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어 직접 제작하고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다수의 대중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1인 방송 제작자를 일컫는다.

군은 이번 교육이 농어민, 자영업,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과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상을 활용한 고흥군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고흥의 문화, 관광, 농수특산물 등 홍보·판촉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구례군, 단감 수출유망단지 집중건설링 감 수출 농업인 30명 참석 농약관리·영농기술 등 교육

구례군이 최근 농촌진흥청, 전남도와 합동으로 '지역 수출유망단지 구례 단감 집중건설링'을 실시했다.<사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혁신 일환으로 열린 건설링에는 감 수출 농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방문해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건설링에서는 최근 육종된 단감 국내 육성품종 재배 및 단감 수출 시 재배단지 농약관리와 유통 등 향후 단감 수출을

향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을 진행했다.

박도진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군은 2015년부터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매년 60t 이상 신선 농산물을 수출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뿐만 아니라 현장 영농기술과 관련한 농업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에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 짓는다

도교육청, 회천면에 300억 투입 세미나실·체육관 등 건립

보성군 회천면 일원에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보성군은 최근 전국 교직원 교류의 장이 될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 건립지로 회천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회천면 일원에 사업비 300여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000㎡ 규모의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곳은 교직원 수련 및 휴양시설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회의실, 세미나실, 복지와 휴식을 위한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존 등을 갖춘 예정이다.

건립이 완료되면 현·퇴직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등 연간 5만여명 이상이 보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립 예정지인 회천면은 탁 트인 바다를 보며 해수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휴양 명소로 급부상 하고 있는 울포해수욕장센터를 비롯해 수산물 위판장,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행정 편의 시설이 밀집

해 있어 휴양과 힐링의 최적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교육과 휴식의 공간인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 건립지로 보성이 최종 확정돼 매우 기쁘다"며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파트너십을 적극 구축해 교직원 문화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